



더 많은 리포트 보기

2024년 1월 4일

반도체 / 전기전자 Analyst 김동원
02-6114-2913 jeff.kim@kbfg.com
연구원 이경아
02-6114-2111 kyunga.lee@kbfg.com

반도체

AI, 강력한 수요 모멘텀 기대

1월 DRAM, NAND 주문량 견조

— 1월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램, 낸드 출하량은 기존 예상을 +2배 이상 상회하고 있다. 이는 ① 올 상반기 온디바이스 AI (노트북, 스마트 폰)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반도체 재고 축적 수요가 증가하고, ② 온디바이스 기기의 생성형 AI 구현을 위한 메모리 반도체 탑재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③ D램 수요가 AI 서버 (HBM3, DDR5) 중심에서 온디바이스 AI로 다변화되며 고부가 D램인 LPDDR5x 수요도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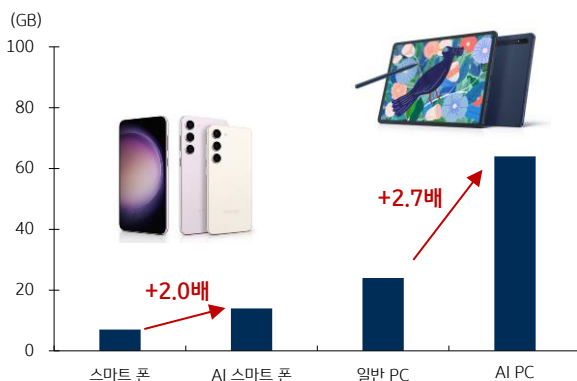
2028년 온디바이스 AI 탑재율 60~80%

— 2024년부터 온디바이스 AI (AI PC, AI 스마트 폰)는 급격히 확대되며 2028년 전체 PC 시장의 80%, 스마트 폰 시장의 60%가 AI를 탑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① 전 세계 40개 PC 업체들이 올 상반기부터 메테오 레이크를 탑재한 PC 250종 출시가 예정된 가운데 인텔이 2025년까지 AI PC 1억대 보급 지원이 예상되고, ② AI 스마트 폰 출하량은 2027년 5억대를 넘어서며 향후 4년간 누적 출하량이 11억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AI 성장 초입 국면, 주가 상승의 강력한 촉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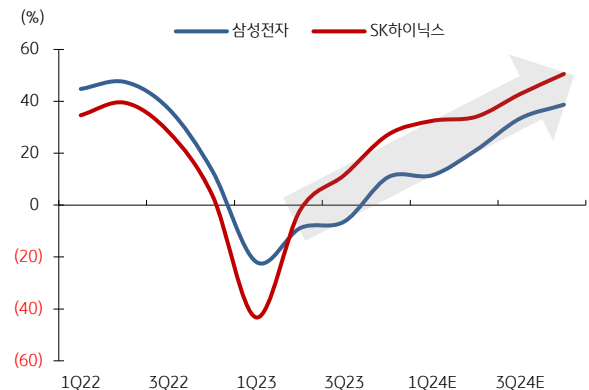
— 20년 전 와이파이 플랫폼이 노트북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의 수요를 크게 견인했듯이 올해부터 온디바이스 AI가 메모리 반도체를 비롯한 PC, 스마트 폰, 가전, 자동차 등 전 산업 분야에서 신규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4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영업이익은 12조원, 8조원으로 추정되어 반도체 부문에서만 전년대비 각각 27조원, 16조원 손익 개선이 예상된다. 특히 2024년 온디바이스 AI 시장은 성장 초입 국면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폭발적 성장에 따른 팽창기 진입이 기대된다. 따라서 AI는 메모리 반도체 및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IP,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파운드리) 업체들의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의 강력한 촉매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림 2>.

그림 1. 온디바이스 AI 메모리 탑재량 +2배 증가



자료: KB증권 추정

그림 2.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RAM 영업이익률 우 상향



자료: 각 사, KB증권 추정



투자자 고지 사항

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삼성전자]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자 및 유동성공급자입니다.

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SK하이닉스]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자 및 유동성공급자입니다.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